

## 물 폭탄

지난 주 그동안 뜸했던 비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4일간 거의 쉬지 않고 내린 비로 더러웠던 자동차는 깨끗하게 되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뒤편 낮은 곳에 물이 차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비가 올 때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캘리포니아 LA 지역 내가 살던 곳은 보통 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서 홍수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일 년에 몇 번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작은 홍수가 나곤 했다. 작은 홍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길거리에 나는 홍수가 아니라 집 안에서 생기는 홍수를 뜻한다.

내가 살던 곳은 50여년 된 집이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하수도 시설과 같은 것이 마당에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비가 한 번 온 후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뒤편 마당에 비가 와서 물이 모여 흐르면 그곳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크지 않은 공간이 있어서 물이 채워질 경우 그 안에 모터가 물을 자동적으로 퍼내어 파이프를 통해 길거리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펌프질을 하는 모터(Sump Pump)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옆에 있던 차고 안으로 흘러 들어와 집 안이 홍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모터가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았고 뚜껑을 열어 보니 한 30년이 넘었을 것 같은 모터가 거기에 있었다. 잘 알지 못하였지만 여기저기를 만져서 얼마간 다시 사용한 적이 있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 때 생각이 나곤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퍼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등이 홍수와 같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내 마음과 생활에서 퍼 내지 않는다면 그 홍수를 감당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24절)고 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퍼내라고 하시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홍수에 죽지 않는 비결은 퍼내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퍼낼까?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말씀을 가슴에 품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가 나의 삶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뜻한다. 그 때에 어떠한 홍수도 겁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물 펌프와 같은 분이시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엉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게 하신다. 홍수가 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며 점점 더 험해져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